

2)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나 나사렛에 사는 사람 사이에 근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가버나움의 랍비나 모두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미워하며 즐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산다고 해서 더 재미있었거나 사람이 뜸한 시골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가끔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베리아 툰드라 같은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큐멘터리로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는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나름 렉서리하게 사는 오늘 우리의 눈에 그들은 불행하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3) 예를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머리에 그려진 지옥은 유황불과 구더기와 악마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야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목사들도 있긴 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가끔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방어법이지 실제로 그런 지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정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꾸로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무슨 상이 따로 있겠습니까. 천국 자체가 상인데요. 다른 이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욕심이 있다면 그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지옥이 두렵거나 천국 상급이 갈급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흑암에 갇힌 사람입니다. 빛을 못 본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선포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회개(메타노이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4) 촛불보다는 반딧불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한여름 밤 숲속이나 개울가에서 반딧불을 보셨는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비가 쏟아지는 캄캄한 들판을 방향 감각 없이 걸어가는 중에 번개가 쳐서 방향을 잠시 잡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천천히 길이 보입니다. 사물이 조금씩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순간도 경험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빛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점점 더 그 빛을 크게 느끼고, 따라서 자기의 삶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말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요 8:38)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본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좋으니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일만은 양보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1월29일

주현절 넷째 주일

세계 교회력 「가」해 10주



‘마리아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리스도를 끌어 내리는 장면을 주제로 하는 그림(Descent from the Cross)의 일부(detail)이다. 웨이든(Weyden)이 1443경에 그렸다. 죽은 아들의 시체를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장면에서 마리아는 뼈에 사무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투명한 눈물을 흘린다. 눈물의 무게가 곧 그녀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다. 스페인 마드리드 델 프라도 미술관 소장. (반드빌트 신학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에서 퍼옴)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갤러리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놀라운 하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일과 비교될 수 없이 생명 충만한 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을 가슴 벅차게 받아들이십시오.

*찬송 18장 (성도들이 찬양하라)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세상 모든 사람과 숨 쉬는 모든 것들과 나무와 꽃들을 포함하여/ 세상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환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득한 우주 끝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사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며,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지난 주일 헌금

1월 15일 : 650,000원(주일헌금 80,000원, 통장헌금 570,000원)

1월 22일 : 300,000원(통장헌금 300,000원)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1, 2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1월29일	김동호목사	윤혜정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윤혜정,윤영위 /아트컬리지5
2월5일	정용섭목사	최선아(사회) 박수진(봉독)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2월12일	이춘우목사	이기령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오미영 /아트컬리지5
2월19일	박재진목사	이유선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5
2월26일	김동호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5

지난주일(1월22일) 설교 발췌

제목: 가버나움 사람 (마 4:12~23)

1) 지금부터는 순전히 추정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용직 목수로 생활하셨을지 모릅니다. 외지인으로 그곳에서 팬찮은 일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을 것으로 보아(막 1:21) 가버나움에서 랍비로 사셨을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예수 가족이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즉 사생활에 관해서는 복음서 기자들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1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주현 후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었으며,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와도 하나 되었습니다. 예배 공동동체에 참여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세계 안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흠어져서 용감하게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공동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쁘고 설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움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감추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도 짜증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 민감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주님의 이 말씀과 지난 2천 년 예배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참회 기도로 바친 모든 것은 용서받았으니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임성숙

이건용

느린 곳거리

1. 내가 산 - 을 향 하 여 눈 - 을 드 네
2. 나 의 가 - 는 받 결 음을 지 - 키 시 네
3. 야 훼 님 - 은 나 - 를 지 키 시 는 분

도울 나 어디서 오 는 가 그 - 어 디 서
나 의 모 - 든 환 난 을 지 면 케 하 시 며

천 지 지 으 신 야 훼 님 나 의 하 나 님
날 의 영 혼 을 밤 중 에 달 히 보 치 못 하 시 고

향 산 도 - 와 주 심 을 내 가 아 시 네
지 금 부 - 터 영 원 하 히 내 들 지 키 시 네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의 능력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솔깃한 말에 길들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거나 과민해져서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이와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미가 6:1~8 ... 윤혜정 집사

성서교독 시편 15:1~5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우리주님 장막에서 감히살자 누구런가 우리주님 거룩한산 머무를자 누구런가
-허물없고 정직하며 마음바탕 진실한자 혀를놀려 남의허물 들춰내지 아니한자
친지이웃 해치잡고 모욕하지 않는자세 하나님의 눈밖에난 망령된자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자 존경하며 비록손해 볼지라도 맹세한일 지키는자
불로소득 얻어내려 돈놀이를 하지않고 뇌물받아 무죄한자 해치는일 없는자세
-이런사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

둘째말씀 고린도전서 1:18~31 ... 윤혜정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5:1~12 ... 윤혜정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삶의 무게 ... 김동호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다 함께